유리장섬유 자급도 8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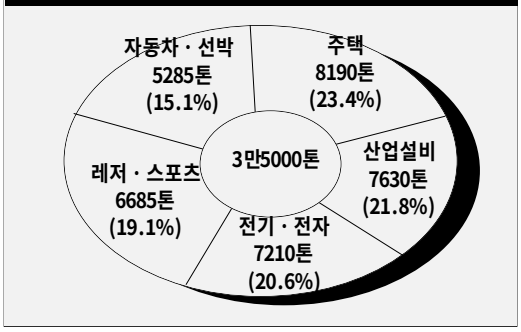
럭키 오웬스코닝 신규 가동…국내 공급 3만2000톤

국내 유리장섬유의 자급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92년 기준 국내 유리장섬유의 수요는 3만5000톤 규모로 이중 45.7% 1만6000톤을 국내에서 공급했고, 54.3%인 1만9000톤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.
그러나 93년 럭키 오웬스코닝의 신규공장 본격 가동으로 예상수요 4만톤 중 80%인 3만2000톤을 자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국내 유리장섬유 생산기업의 연간 공급능력은 한국베트로텍스 2만5000톤, 럭키오웬스코닝 2만5000톤, 한국화이바 1만톤 등 총 6만톤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유리장섬유 생산현황 (단위 : 톤)

구 분	생산능력	1992	1993
럭키오웬스코닝	25,000	-	10,000
한국베트로텍스	25,000	8,000	14,000
한 국 화 이 바	10,000	8,000	8,000
`계	60,000	16,000	32,000

국내 유리장섬유 용도 비중(1992)



유리장섬유는 항공 · 우주, 전기 · 전자, 건축, 레저, 해운산업, 강화플래스틱 복합재료 및 기타 일반산업용 재료 등 전산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 및 스포츠 · 레저산업의 성숙과 FRP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.
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, 전자, 조선 및 항공산업 등의 발달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전문산업 분야별 특화로 신소재인 유리장섬유의 수요가 83년 이후 연평균 23%씩 증가해왔다.
유리장섬유의 92년 수요 3만5000톤 기준 용도별 사용현황을 보면, 주택분야 8190톤 23.4%, 산업설비 7630톤 21.8%, 전기 · 전자 7210톤 20.6%, 스포츠 · 레저 6685톤 19.1%, 자동차 · 선박 5285톤 15.1% 등이다.
한편 일본은 연간 생산 44만톤 중 FRP용이 63.3%를 차지하여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일반산업용 11.7%, 전기절연용 4.2%, 기타 12.0% 수출 13.5% 등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.
미국의 유리장섬유 생산량은 연간 30만톤 이상으로 이중 1% 정도인 고강도 유리섬유 수요량은 연간 약 2000 ~ 300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3/8/9>